

붙 어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다음을 붙어로 옮기시오.

(총 20점)

- 1) 한 세기 전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을 때, 각국의 지도자들과 대표단들은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베르사유에 모였다. 사절단들은 배와 기차를 타고 왔으며, 협상은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거기에는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비행기를 통한 쉽고 빠른 여행의 도래와 더불어, 정상회담과 국제회의는 며칠짜리 행사가 되어버렸고, 이러한 행사들이 열리기 위해서 대사들과 ‘셰르파들(sherpas)’ 그리고 다른 대표들이 수행하는 사전 협상이 필요해졌다. ‘셔틀 외교’라 부르는 국가 간의 왕래는, 이제 줌(Zoom)에서의 왕래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화상 회의는 훨씬 더 안전하고 비용이 덜 드는 데다가, 탄소 발자국도 남기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시차적응으로 인한 문제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10점)

* 우드로 윌슨: Woodrow Wilson

* 셔틀 외교: la diplomatie de la navette

* 탄소 발자국: empreinte carbone

- 2) ‘노란조끼 운동’은 2018년 10월 프랑스에서 발생한 비조직적인 저항 운동이다. 이 자발적인 사회 운동은 주로 사회관계망에서 전개된,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에 동참하라는 호소의 확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운동의 요구사항은 급속도로 사회 및 정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이 집회들이 열릴 때, 대부분의 경우 신고가 되지 않았고, 시위대 측과 기동대 측 모두 마찬가지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대규모 운동에 직면하여, 에마뉼엘 마크롱 대통령은 여러 조치를 발표하고 국민적 대토론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이 운동을 종식시키지 못했으며, 시위들은 여러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10점)

* 에마뉼엘 마크롱: Emmanuel Macron

제 2 문.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총 30점)

- 1) Je conçois dans l'espèce humaine deux sortes d'inégalité : l'une que j'appelle naturelle ou physique, parce qu'elle est établie par la nature, et qui consiste dans la différence des âges, de la santé, des forces du corps, et des qualités de l'esprit, ou de l'âme ; l'autre qu'on peut appeler inégalité morale, ou politique, parce qu'elle dépend d'une sorte de convention, et qu'elle est établie, ou du moins autorisée par le consentement des hommes. Celle-ci consiste dans les différents privilèges, dont quelques-uns jouissent, au préjudice des autres, comme d'être plus riches, plus honorés, plus puissants qu'eux, ou même de s'en faire obéir. (15점)
- 2) La troisième révolution agricole a commencé. Elle promet une production plus écologique, respectueuse des terroirs et des consommateurs. Mais attention à ne pas exclure trop vite d'autres modèles, étant donné qu'il existe de nombreux pays où il subsiste encore la faim et l'insécurité alimentaire. Dans ces pays, la part du budget des ménages consacrée à l'alimentation est telle que le coût de la nourriture conditionne la paix sociale. En effet, les émeutes de la faim des années 2007-2008 ont fait le lit des révolutions arabes de 2011 et de la guerre en Syrie. Cela dit, les citoyens des pays européens n'en ont pas toujours conscience : ils ont oublié la peur de manquer, si bien que l'alimentation est devenue chez eux l'objet de tous les fantasmes, au point que la question n'est plus savoir que manger, mais que ne pas manger. (15점)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